

2040 충남의 미래 청사진 수립 착수

충남도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충남도가 2040년 충남의 미래상을 새롭게 그린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 분권과 참여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앞으로 20년 간 충남의 교통과 물류, 환경, 문화, 관광, 산업, 복지, 주택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사)와 실·국·본부장, 시·군 기획감사실장,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 마다 수립하는 지역 발전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 하고,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

계획을 담는다.

도 종합계획은 또 시·군 종합계획 등 하위 계획의 방향과 지침이 되는 한편,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부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지역계획 만료 시기(2020년)가 도래하고, 새로운 메가 트렌드 등장, 국토 정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해 장·단기 정책 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도민 복리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계획에 담게 될 주요 내용은 ▲ 지역 현황·특성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 전망 ▲ 지역 발전 목표와 전략 ▲ 지역 공간 구조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 ▲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 ▲ 지역 자원 및 환경 개발

보존·관리 ▲ 토지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 등이다.

또 ▲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 환경 개선 ▲ 문화·관광 기반 조성 ▲ 재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 관리 ▲ 범죄 예방 ▲ 지역산업 발전 및 육성 ▲ 재원 조달 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등도 포함한다.

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는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10개 분과 82명으로 구성하는 추진기획단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분과별로 도 정책지원단과 충남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한다.

도는 이와 함께 대학과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자문을 받는다.

도는 특히 도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 종합계획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

50~100명으로 구성하게 될 도민참여단은 2040년 미래상 및 부문별 이슈 도출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도는 이밖에 지역의 전문가와 NGO 관계자 등으로 혁신이 플랫폼도 구축,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계획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김용찬 부지사는 "도 종합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 한 계획이자,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한 지역별·부문별 계획, 하위 계획의 지침 제공 계획"이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충남도의 비전으로 제시한 '환황해권 시대를 여는 포용적이고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이라는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해 2040년 충남의 미래 발전 전략을 구체화 하는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도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같은 해 6월 4대 권역별 공청회와 8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중앙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도 종합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대전 동구의회, 임시회 대비 의정간담회 개최 대전시 동구의회(의장 이나영)는 10일 전체 의원 의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제245회 임시회 부의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간의 회기 운영일정을 확정하였고 조예안 등 총 12건의 의안접수 시안과 당면 현안사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진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

내년 예산 확정 후 2년간 최대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더불어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지난 11일 당진 전통시장에서 중도벤처기업

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 개발, 디자인 재생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서면평가, 고객 평가, 현장평가의 3개 부문에 대한 평가 후 지원시장을 선정했으며 '20년도 예산 확정 후 2년간 최대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될 예정

이다. 어기구 의원은 "당진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으로 시장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당진을 많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형 농어민수당 도입되나

농민수당제 도입 정책연구모임 농민·유관단체와 토론회



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을 수확하기 위해 도민, 유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원 조

안에 대해 검토·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은 최장과 발제자로, 이선영 의원(비례)과 조광남 예산혁신농협 이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해 완성도 높은 농어민수당 조세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산군의회 제262회 임시회 개최

금산군의회(의장 김종학)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임시회 개의 첫날인 19일에는 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한다.

이는 기존 설치한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반대 특별위원회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향후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오전과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안건으로는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2020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 ▲신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이장우 시장위원장, 조국 임명철회 1인 시위 펼쳐

주민 참여형 문화재청 공모사업 12건 대거 선정

정진석 의원,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의원은 지난 11일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공주·부여·청양의 지역 사업 12건이 대거 선정되며, 국비 6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별로는 「2020년 생생 문화재 사업」에 공주시 '공주 문화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초

대', 부여군 '부여동헌에서 피우는 문화향기', '생생 외파사! 정암리 외오', 청양군 '위기의 조선 그리고 최익현' 총 4건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2020년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에 공주시 '공주에서 칠우지향을 꿈꾸다', '충현을 담은 꿈꾸는 서원', 부여군 '향교의 화려한 변신, 부여분에 장작스쿨' 총 3건이 선정되었다.

특히 「2020년 아형 사업」에는 공주시 '지혜히 보아야 더 예쁘다', 부여군 '부여문화재 아형'이

선정되며 국비 3억 7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약 7억 7,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행 행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2020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2건, 「고택중가집 활용사업」1건이 선정되었다.

정진석 의원은 "비록 개별 사업 자체는 소규모이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형 사업"이라며, "백제문화에 대한 바로알기와 자긍심 고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강훈식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민생현장 나서

추석 명절 맞아 귀향인사에 나서...민생 현장방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이 6명의 아산을 시도 의원(조철기·안정현·도원익·김미영·김희영·안정근·이상벽·시의원과 함께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귀향인사에 나서,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강 의원은 아산시 노인회(회장 오치석) 회원들과 차담을 나눴다. 아산 내 우체국 인력 부족 문제, 주요 도로 공사 현황 등 아산시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음봉 산동복지관관장 장보윤을 방문해, 열악한 복지관 재정과 노후 설비 교체 문제 등 복지현장에서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식의 면담이 진행되고, 점심 식사 배식과 복지관 어른들의 식사를 직접 챙기기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배방 하나모매트, 천안아산역, 온양온천 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석 인사에 나섰다. 특히 천안아산역에서는 김영애 아산시장, 배방을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귀성객들에게 추석인사를 나눴다. 또한, 강훈식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 함께 천안아산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방문해, 천안과 아산 일대의 교통 통제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관련 직원들에게 격려 인사를 보냈다.

강 의원은 평소 민원정책의 날에서 청취했던 도로 및 대중교통 관련 민원을 양 지사에게 전달하며, "아산시에 필요한 구비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남도, 아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광주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대전시장위원장은 11일 오전 대전역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오가는 귀성객들에게 응당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등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 빠르고 안전한 천안'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박원주 의원 "천안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천안시 서북구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이 배정되면서, 천안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주(충남 천안) 의원은 ▲백석동 한서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중로1-83호) 개설 5억 원 ▲신부동 힐스테이트~두정동 e관한세상(중로1-14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 설치 공사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 설치(불당신도시 농협 번영로지점 앞)를 위한 특고 3억 원을 확보하면서 번영로 기준으로 동·서로 단절되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천안시민과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당동은 천안시 전체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다. 그러나 불당신도시와 기존의 불당지역 사이에 번영로가 있어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불당동 번영로를 기준으로 북쪽과 중앙에는 안전한 통행장치가 마련되거나 설치될 예정이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남쪽에는 횡단보도에 의지하고 있어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우려가 큰 실정이었다.

이에 불당신도시 호반3차와 기존의 불당지역을 연결하는 육교가 설치되면 아이들의 통행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석동 한서중학교 앞 도로는 신규아파트 입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출퇴근시간 차량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83호)가 완공되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특고 3억 원을 확보한 두정동 e관한세상 3차 아파트부터 신부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중로1-142호)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두정역에서 북일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교통이 더 빨라질 것이다.

박원주 의원은 "더 빠르고 안전한 천안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이 확보돼 천안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치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성규기자

천안시의회, 약취 집단 민원 해결 현장 방문

차임동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제기된 약취 집단민원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종담) 위원장, 북아영 의원 지역구 의원인 엄소영 의원, 배성민 의원은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차임동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제기된 약취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9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주민들이 약취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 대규모 음식물폐기물 A업체를 방문한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A업체의 음식물 폐기물 반입후 처리 공정과 약취 포집기 작동여부 확인 등 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법적 처리 기

준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 실사를 마친 이종담 위원장은 "폐기물처리 공정과 약취 포집기 작동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약취가 발생한다는 집단민원이 있는 만큼 시설 밀폐 등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업체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업체 방문 후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관리소장과 의원들을 통해 약취 원인 파악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 의견청취는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향후 1개월간 약취 발생 시간대, 발생 시 기상 상태 등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 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절차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약취 재포집 후 원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탈취시설 보강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엄소영 의원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약취저감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배성민 의원은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부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더운 여름에 약취로 창문을 열고 살수 없으면 분통 터질 노릇이다. 한달 뒤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약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에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부여를 세계 고도(古都)연합의 중심도시로 만들 터”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군민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지난 1년이었습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인터뷰 시작부터 지역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들이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군수는 취임 후 지역내 현안문제였던 4대강 부여보 문제와 부여군 초촌면 방지폐기를 처리문제도 원활히 해결해 냈다. 박정현 부여군수를 만나 그동안의 군정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민선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의 부여군정을 결산한다면?
 일단과 빠른 속도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백제의 고도이자 농업군인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정체성만 잃게 될 수도 있어서 ‘잘 하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만’이 길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백제 고도로서의 가치입니다. 이제 세계 모두가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의 품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입니다. 이 두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군정의 철학과 방침을 모든 선진국은 예외 없이 사회적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민·관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선순환이 꽃피는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비전이 바로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군의 가치를 높이고 군정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총량제를 전국에서 두 번째,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업체당 공

사·용역의 수의계약 총금액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년 정책입니다. 우리군의 정주환경을 훼손하고 청정 부여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기업형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민수당 지급입니다. 도농간의 격차, 기업농과 고령농, 영세농의 격차에서 비롯된 양극화는 농촌사회를 파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가당 연간 60만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농민과의 연대, 그리고 다른 농촌지역의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청탁의 배제입니다. 크고 작은 분야에서 청탁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못 하고 그렇다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인사와 사업, 보조금 등 모든 분야에서 청탁을 배제하겠습니다. 앞으로 청탁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생,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국비확보가 선행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부여읍 북부지역 62억원, 홍산·육산 구간 288억원, 홍산면과 내산면을 잇는 교정선 104억원, 임천지역의 국도29호선 99억원 등 3,0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4,000억원 규모의 은산-정양 구간과 장암-인천 간의 국도29호선개설사업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축제의 미래를 찾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축제의 목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개최된 제16회 서동연꽃축제와 제6회 백제문화제는 날씨와 장소를 다시 구드래로 옮기는 등 다소 혼란은 있었지만 매우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즐거자! 세계유산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여는 봄, 여름, 가을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갖고 있는 백제고도의 가치를 활용하고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은 군정운영의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도 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갈등요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군민의 입장을 1순위에 놓고 군민과 함께 동행 하는 것이 앞으로도 군정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향후 3년과 중장기적 부여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 말씀해 주시죠?
 첫째 세계적 명성의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역사문화도시공원을 남평공원에 조성하고, 부여아름마을에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리조트, 호텔 등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제역사너울옛길과 화지산 백제과원 및 들레길 조성으로 금강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우리군 고유의 색깔을 가진 마을을 조성하여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부여만의 특색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를 국제적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키고 서동연꽃축제와 부소산 봄 나들이 축제 등 계절별로 개성 있는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중앙 최대의 선사유적인 송국리 선사유적을 정비하고 2038년 완료 예정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농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청년, 여성, 귀농귀촌인, 젊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농민수당을 농업인·단체와 협의하여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굿뜨래 종합유통센터와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밤 재배농가에 대한 생태농업직불금 도입과 귀촌인을 위한 제2의 고향마을을 조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지원을 확대하고 부여군 푸드플랜을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민관 거버넌스 농정시스템을 정착하고 민관협력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경제공동체와 잘사는 부여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잘살도록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청년성장 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경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업자의 안정된 경영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상인역량강화, 경영혁신지원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시장을 육성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활임금제,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대표 음식브랜드 확산 등 우리군의 자원이 우리군 내에서 순환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행복한 부여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리 동네 아이돌봄, 장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확대 등 육아보육정책을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공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교통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행복택시, 다문화 가정 영재육성 발굴, 장애인 공공작업장, 장애인 체육 구성,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마을 경로당 종합복지센터 전환, 경로당 부식과 난방시설 취사도우미 제도 운영, 치매전문 치료 요양병원 노후장비 지원을 추진하여 군민 한 분도 소외됨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 문화, 환경친화도시 부여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학생도 도시수준의 교육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키즈 북카페를 건립운영하고, 부여행복교육지구 운영,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도서관이 지원, 향토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여도서관을 건립하는 한편 공공형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와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청정부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백마강 환경보전 및 지역 도량살리기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방치 폐슬레이트 제로화 사업 조기완료, 상수도확대와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과 태양광시설 제한, 산업폐기물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제한을 통하여 청정환경의 부여 보존하고 백제 고도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여군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겠습니다. UN과 중앙정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부여의 미래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반도 고대문명 원류인 ‘백제 역사문화’와 ‘고대 한류문화’의 중심지인 부여에 복합문화공간인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대 왕조국가의 수도 도시간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세계 고도문화진흥 포럼’을 설립하고 ‘다보스 포럼’의 사례와 같이 세계 고도연합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백제-신라-고구려의 삼국문화제를 국가축제로 개최하여 남북대치를 극복하고 문화통일을 통한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최대의 선사유적인 송국리 선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국제적 지명도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산 하구둑을 철거하여 금강 본래의 생태환경을 되찾고 아울러 해상국공 백제의 바닷길을 복원하는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의 복원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나아가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금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들에게 하십시오 말씀이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현실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군민들께서 격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 800여 부여군 공직자들은 군민에게 책임을 지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모든 것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정한지 15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500년을 생각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균형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거듭 민선 7기 군정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이정복 부국장·정리=김정환 기자

• 동 정 •

민방위 보충1차교육 실시



황인호 동구청장= 16일 오후 2시 청소년 위관센터에서 2019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을 실시.

어르신 체육대회 해단식



박용갑 동구청장= 16일 오전 11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열리는 '어르신 체육대회 해단식' 참석.

행복동행 동네마실에 나선다



장종태 서구청장= 16일 오전 10시 정립동으로 행복동행 동네마실에 나선다.

제1차분회의



정용래 유성구청장= 16일 오전 11시 유성구의회 분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분회의에 참석.

지방정부협의회 국회 전시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국회 전시회 및 토론회에 참석.

동구 스토리텔링 교육으로 관광동구 보석찾기 해법 풀다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1일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마을활동가 130여 명을 대상으로 '관광스토리텔링' 기반을 활용한 동구 보석찾기'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관광스토리텔링의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 차별화된 관광동구 이미지를 창조할 좋은 스토리를 발굴·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스토리텔링발전포럼 김유석 대표를 특별 초빙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로 동구의 각종 축제 및 관광문화 발전 방향을 제시해 직원들의 큰 공감대를 자아냈다.

또한, 김대표의 20년 스토리텔링 실무경력에서 나오는 기획력 향상 방안 및 최신 대중트렌드의 이해에 관한 자세한 예시로 교육 참석자들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는 향후 공무원과 주민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발전에 앞장선다는 복안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수명이 길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려면 독특한 콘텐츠와 '이야기거리' 이른바 '스토리텔링'이 잘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강이 동구 관광콘텐츠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규모 확대

대전시, 오는 17일 시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최종 결정

올해부터 1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2020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이번 주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는 오는 17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시민총회를 열고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사업을 최종 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시정참여형 76억 원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 점수 50%와 온라인 시민투표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이어 2부에서는 오후 1시부터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난 1년간 주민참여예산 진행과 관련한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지역참여형 20억 원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온라인투표에서 추천한 시민

투표단 250명이 보팅 머신 방법으로 사업을 결정한다.

3부는 오후 3시부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 구성된 20개 동지역회의 지원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승인으로 각 2000만 원씩 모두 4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시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 도입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모두 5,213명의 시민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온라인투표는 시정참여형 71개 사업에 대해 시민이 10~20개

사업을 투표하도록 했는데, 1인 평균 13개 사업에 투표하고, 총 투표수는 6만 7,864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지난 8월 개설하고 제안사업 1,541건을 모두 홈페이지에 입력해 시민들이 쉽게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1차 선정된 71개 사업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관심 더욱 뜨거워졌음을 느낀다"며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 결과 순위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효와 칼국수의 매력 축제 속 축제같이 느껴요

올해 11번째를 맞이하는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이번에는 칼국수와 함께 돌아온다. 만성산과 유등천을 병풍처럼 두른 천혜의 보고인 뿌리공원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와 제5회 대전칼국수축제가 함께 열린다. 두 축제가 함께 개최되며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중구는 보다 자세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6시 열리는 이번 개막식은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뿌리공원에 성조기홍물이 있는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을 표현한 '독립운동가의 대한 독립만세'로 시작된다. 이후 한민족의 희로애락이 담긴 아리랑을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함께 부르는 아리랑 페스티벌이 이어진다.

효문화뿌리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문중퍼레이드는 각 문중의 고유한 특징을 표현하며 150여 문중에서 4천여명이 참여해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그 후에는 청소년의 열정 가득한 전국효문화청소년페스티벌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BJ장현의 거리노래방으로 세대 간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하루가 펼쳐질 예정이다.

셋째날에는 25만 중구민이 화합하는 '3대 가족 퍼레이드'와 평소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호 세족식이 예정되어 있다.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의 뿌리부터 미래까지를 형성화 한 '대전심무 공연'과 '효심공약' 등 축제 기념의 장이 펼쳐진다.

축제 3일 동안 유등천에는 길이 100m의 부교가 설치된다. 부교 위에는 대형 LED TV가 설치되어 효율 표현한 다양한 영상물로 관람객의 발길을 잡을 예정이다. 유등천엔 절벽을 배경삼아 다양한 효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 유등, 불꽃소가 매일 밤 축제장을 수놓으며 다양한 색으로 빛을 발하는 뿌리공원 야경과 함께 축제장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뿌리공원 연리지 앞에는 어린이를 위한 에어바운스, 어린이 효인형극, 버블쇼·페이스페인팅 등이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국궁장에는 젊은 선남선녀의 만남의 장이 29일과 29일 양일간 열린다. 이미 예상을 뛰어넘은 신청자가 접수를 마쳤다.

매년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개최됐던 칼국수축제가 올해는 공인정비사업으로 축제 속의 축제로 자리잡아 뿌리공원 하상주차장에서 효문화뿌리축제와 함께 열린다.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은 매생이, 추어, 팔김치, 어죽 등 9가지 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 건강하고 맛있는 칼국수를 뽑는 '웰빙 칼국수 경연대회'와 솜은 손맛 장인을 찾는 '엄마손맛을 찾아라', 칼국수에 얹힌 다양한 사연과 음악을 소개하는 '보이는라디오'도 진행된다.

박용갑 청장은 "대전의 대표음식 칼국수를 전국에서 찾아온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효를 즐기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갑 기자

중구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 펼쳐

명절 연휴기간 중 전통시장·역서 축제 홍보 병행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추석명절 연휴기간 중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중앙로·서대전역을 찾아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구 관계자 뿐 아니라 도로명주소 활성화 서포터즈도

활동에 함께 했다.

귀성객과 시장이용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나눠주고, 택배회사도 찾아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전달하며 명절을 맞이해 급증한 물류배송이 좀 더 쉬워지도록 도왔다.

더불어 9월 27일부터 3일간 뿌리공원에서 열리는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와 제5회 대전칼국수축제 홍보도 함께 했다.

박용갑 청장은 "도로명주소가 이제는 일상 속에 많이 스며들어 익숙해졌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서구 찾아가는 인구 교육 실시

10월까지 관내 10개 어린이집 6·7세 아이들 대상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10개 어린이집의 6,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진입, 합계출산율 0.91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구는 오국회 한자녀더갓기운동

연합 대전본부 분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와 퀴즈 형식을 이용하여 유아 대상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의 위험성 및 가족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가족생활의

행복함 등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기존 성인 대상 교육과 차이를 보인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인구감소,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핵심 가치에 대해 배움으로써 인구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갑 기자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교육 실시

유성구보건소 "시간-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효과 기대"

유성구보건소(소장 신현정)는 유성구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 구 사회복지과와 연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상반기 건강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의견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번 하반기 건강교육에 반영해 안과 질환, 암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구강건강, 치매 예방 관리 등 교육 참여자의 욕구와 흥미에 맞는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1월부터는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후 건강검사항합·혈당·총콜레스테롤, HDL,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현정 소장은 "ICT를 활용한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갑 기자

대덕구 청소년 정책창안대회 열어

오는 10월 4일까지 지역의 변화이끌 아이디어 모집



이 한 팀을 구성하여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팀은 역량강화 워크샵, 정책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발표대회에 참여하며, 이 중 7개 팀에게 대덕구청장상, 대덕구의장상, 대전동부교육지원청장상, 초록우산상이 수여된다.

우수한 정책 제안은 부서별 검토를 거쳐 대덕구 정책에 실제 반영될 예정이며, 참여한 청소년들은 2020년에 모니터링을 하며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제1회 대덕구 청소년 정책창안대회는 사회구성원이자 권리주체자인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교육환경,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사생활과 가정환경 등 6개 분야로 나눠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대덕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혹은 대덕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며, 3명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

동구, 18~25일까지 45명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현장 조사 요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며 가구와 주택에 대한 기본 사항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규모 등을 파악하여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은 총괄관리자, 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 조사지원 관리자 등 총 45명이며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자로 특히 이번 조사는 전자 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조사요원 모집 및 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기획공보실(☎251-4074)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초석이 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맞춤형 케어'로 명절피로 푸세요. 유토티비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은경)을 찾은 고객이 글로벌 건강케어 브랜드 오섬 매장에서 명절기간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 줄 헬스케어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최적의 휴식을 위해 제안하는 안화에술공인 문화예술공연의 다리 마사지와 소형 마사지기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갖추고 있어 내 몸에 맞는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



유등노인복지관 추석맞이 문화예술공연 및 특식제공. 유등노인복지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문화예술공연과 경로식당에서 송편 및 명절 음식이 담긴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박용갑 관장은 "추석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지역 어르신 모두 보다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특 ● 정 ● ●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 수= 16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 회의에 참석.

세종시 주민이 직접 뽑은 연동면장·도담동장 선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연동면장과 도담동장에 대한 시민추천 주민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연동면장에 황미라 사무관, 도담동장에 양진복 사무관이 추천됐다.

연동면장 및 도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려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로부터 해당 면·동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및 평가가 실시됐다.

주민 면접 및 심사결과에 따라 연동면은 황미라 사무관, 도담동은 양진복 사무관이 최고 득점을 획득해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결과는 곧바로 인사부서로 통보됐으며 16일자로 인사발령됐다.

특히 이번 주민심의위원회는 풀뿌리 자치 및 민주적 참여 활성과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성돼 해당 도담동 현안 및 지역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면서 심사의 질을 높였다.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연동면 지역에서는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시민추천 주민심의위원회가 구성, 가동됐다.

이번 심의에서 황미라 사무관은 '연동면 구원'을 슬로건으로 시민참여와 시민과 소통하는 현정행정을 강조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진복 사무관은 '시민주도·시민참여·시민중심'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정이 있고 이웃과 함께하는 도담동'을 주제로 투명한 행정, 쾌적한 환경, 문화향유 기반 구축 등의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연동면 및 도담동장 시민추천으로 세종시 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실시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김태선 기자

개관 2주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크게 늘어

道 학교·기관 등 재방문을 높여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극복 과정을 기록하고 이에 동참한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노고를 담아낸 충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았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유류사고 극복 10주년을 맞아 지난 2017년 9월 개관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는 현재까지 1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특히 유류피해사고 및 해양환경 전문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해설사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 힘입어 올해 관람객 수는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5만 3000여 명을 기록 중이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개관 이후 2년간 유류사고 극복을 널리 알리기 위해 △깨끗한 바다그



리기 사생대회 △한여름 밤 영화 축제 △특별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왔다.

또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도 기울여 왔다.

아울러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지난해부터 '충남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 받아 해양환경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소년 해양환경

교육 등을 진행해 해양쓰레기과 해양환경 문제 인식 전파에도 힘쓰고 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계자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념관을 한 번 방문했던 학교·기관·단체들의 재방문이 늘었다"면서 "기념관을 통해 극복·자원봉사의 뜻깊은 정신과 감동을 전달하고,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유류피해 극복 과정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로 운영 중이며, 대관·관람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635-2991)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 산림 정보통신기술 컨퍼런스 '최우수상'

불통지역 해소 및 재해방지 사례

충남도는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컨퍼런스'에서 산림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한 산림ICT 컨퍼런스는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갖기 위해 시작했으며, 산림분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유일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다.

도는 '이동통신 불통지역 해소'로 등산객 안전 및 재난 방지를 주제로 10개 팀 중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주제 내용은 도내 주요 명산 통신 불통지역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산악사고 발생 시 신고지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동사의 기반시설을 이용, CCTV 설치 등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도는 앞서 지난 5월 이통 3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불통지

역 해소로 대국민 통신서비스 질 향상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방지 △기후적 기반시설 공동이용으로 산림훼손 최소화 등 일거양득 효과를 창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악지대의 음영지역 해소는 등산객의 안전 확보 및 재해방지 측면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라면서 "도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응원하며, 정보화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충남의 미래 수상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산림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면서 "도는 산림청과 연계, 산림현장 최일선에서 '가성분의 미래를 성취의 미래'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산림녹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대응역량강화 모의훈련 실시

예산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력 등 비상상황을 가정한 특이민원 대비 대응역량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요령을 습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모의훈련을 비롯해 민원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민원실 안전사고 예방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 민원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예산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태풍 피해 농가 지원 총력



예산군이 추석연휴 전 제 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인력 및 자원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공무원 280명, 군 병력 100명, 농협 및 기타 유관기관·단체 550명 등 모두 930명을 긴급 투입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 54곳(62ha)을 대상으로 낙과 줍기와 비세우기 등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특히 시과 주산지인 군은 과수농가들이 강풍을 동반한 태

풍의 영향으로 많은 낙과 피해를 입었고, 떨어진 사과와 배를 그대로 두면 썩으면서 병충해가 전염되기 때문에 낙과 줍기에 집중 지원이 이뤄졌다.

아울러 군은 이달 18일까지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를 마무리해, 농약대와 대파대 등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추석 연휴 이전 복구를 목표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구 기자



예산황토사과 러시아 수출길 올라

예산농능협(APC) 예산황토사과 수출 출하식

예산군 대표 농특산물인 예산황토사과가 러시아 수출 길에 올랐다.

군은 11일 예산농산물유통센터(APC)에서 황선봉 예산군수,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예산농능협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황토사과 수출 출하식을 가졌다.

이번에 러시아로 수출되는 예산황토사과는 올해 수확한 홍로 품

종이며, 규모는 총 4톤으로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 수출돼 극동지역 대형 유통마트 등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예산황토사과는 중부권 최대의 사과 주산지인 연간 2만98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풍부한 재배경험과 기술, 청정 황토밭과 일조량이 풍부한 환경에서 생산돼 타 지역 사과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전국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김성구 기자

“행복도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19 행복도시 제안 공모대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2019 행복도시 제안 공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도시 제안 공모대회는 행복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중교통 개선'과 '행복도시 안전사고 예방'이며, 그 외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제안

도 제출이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국민생각함(ideapeople.go.kr/nacc)의 '공모게시판'에서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한 후 댓글로 제안서를 첨부하면 되고, 행복청 누리집(nacc.go.kr)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제안서 접수일정은 9월 16일(월)부터 10월 31일(목)까지이며,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당 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2명) 30만원, ▲

김태선 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세종시 예비군 훈련장 마을버스 증회 운행

93번 버스입·퇴소시간 2회 증회... 시민 이용편의 증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예비군 입소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예비군 훈련장을 경유하는 93번 버스를 2회 증회 운행한다.

그동안 전동면 송곡리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경유하는 버스는

분내 타야하기 때문에 훈련을 포기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에 시는 운송업체인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개선을 요청해 16일부터 조치원발 93번 버스의 운행시간 조정(08:10→08:00)과 1회 증회(08:20)운행을 통해 예비군들의 훈련소입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퇴소시간에도 기존 17시 40분에 더해 16시 20분 1회 증회 운행 입소자들의 원활한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던 예비군들에게 버스 증회 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내 연간 예비군 훈련 대상은 1만 4,662명이며, 1일 평균 소집일수 91일) 160여 명이 입·퇴소하고 있다.



‘이제우린’ 홍성역사인물축제 홍보 라벨지 부착

이제 대전·충남을 대표하는 주류회사 ㈜맥키스 컴퍼니의 소유 '이제우린'에서 홍성역사인물축제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맥키스 컴퍼니 전략기획팀 권혁수 과장과 운영진 팀장은 홍성군을 방문해 홍성역사인물축제 추진위원회와 만나 2019 홍성역사인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이제우린' 병 보조라벨 전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9월 둘째 주부터 역

사인물축제 일정 및 주제 등 관련 내용을 삽입한 라벨지가 붙은 가정용과 영업용 '이제우린' 소주 총 20만 본이 본격적인 유통에 들어갔다.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와 충청남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홍성역사인물축제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홍주읍성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함용은 편'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주 라벨지에 홍성

역사인물축제 홍보 라벨지가 부착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에 축제를 알리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축제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맥키스 컴퍼니는 대전·충남의 향토기업으로 계속 산 황토김, 맥키스 오페라, 계속 산 맨발축제, 대전맨발마라톤 등 기업 활동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유가치창조의 선두 기업이다.

우리/동네

2035년 목표 도시공간 발전방향 수립

천안시, 투명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확정 9개 기관에 당부

천안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적 계획이자,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모든 공간계획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천안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를 94만 명으로 계획하고 도시성장 추세를 감안해 공간을 재검토,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도시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계획, 광역교통·도시교통 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미래상은 '행복과 휴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로 휴이 있는 미래 '문화도시', 깨끗하고 편안하며 활기 넘치는 '안전도시', 삶의 질이 높은 인간중심의 친환경 '정주도시', 생산성이 높고 경제소득이 윤택한 '상생도시'로 설정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도시 기능의 집약화와 탄력적인 인구배분계획을 위해 기존 1도심과 2부도심(서한·

직산, 목천·병천), 3지역중심(임장·성거, 청룡, 풍세·광덕) 등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자제적인 자족기능과 정주여건 향상과 복부와 동·남부의 균형발전 목표와 시가화예정용지 공급계획을 수립, 균형발전축과 광역적 산업업무 연계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신교통수단 도입,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 친환경적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방안, 통합적인 안전 도시정보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았다.

시는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문 및 관계기관인접 시·군 등 협의 등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12월 이전에 충청남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분영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미래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라며 "분야별로 업무에 대한 비전을 본 기본계획에 담자 미래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천안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정

시민과 대화의 날



구분영 천안시장= 16일 오후 3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주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 이하 공단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제도혁신 ▲적극행정 ▲사회적가치 실현 ▲일자리창출 ▲행정능률 향상 ▲주민편의 시책발굴 등 공단경영과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참신한 제안이된다.

천안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dmc.or.kr)에서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전자 우편(idea@dmc.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2명 10만원)으로 시상하며, 총 상금은 100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천안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열린혁신팀(041-559-36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명품 보컬 '손승연'

천안서 유관순을 노래하다



천안문화재단(안대진 대표이사)이 오는 26일 저녁 8시 천안흥타령춤축제 주무대에 서 3·1운동 100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콘서트 유관순'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야외공연으로 진행되며,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유관순 열사의 삶과 고뇌를 담은 주옥같은 노래 12곡을 선보인다.

유관순 역에는 MBC 박명기 8연승 가왕으로 유명한 가수 손승연<사진>이 맡았다. 조선총독부 2대 총독인 히세카와 역에는 'DMF 뮤지컬 페스티벌'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뮤지컬 배우 서범석이 열창한다.

라이브 연주에는 천안시립교향악단과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합창에는 천안시립합창단 등 100명의 출연진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뮤지컬 콘서트 유관순'은 3월 1일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작품이다.

입장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천안 흥타령춤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천안문화재단(041-900-0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구분영 천안시장,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주세요"

구분영 천안시장은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홍보 및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성정시장, 천안역전시장,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했다.

구 시장은 시민들과 일일이 명절 전 인사를 나누며 시장 이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독려했다. 또 시장 내 개별점포를 방문해 어려운 주변여건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 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추석 차례상 준비 등 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2019의 성공적인 개최 위해

흥타령춤축제 자원봉사단 결성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흥타령춤축제 20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은 결의문 낭독, 유니폼 전달, 축제 개요설명, 봉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 근무지배정 등의 내용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축제기간에 자원봉사자는 1일 190명이 근무, 5일간 연인원 950명이 투입되며, 이들은 이번 발대식에서 축제 성공 개최 의지를 다지고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천안시 동남구, 국민청원 등의 위한 홍보 캠페인

'전철타고 독립기념관 가고 싶어요'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박현신)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역에서 '전철타고 독립기념관 가고 싶어요!' 국민청원 동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천안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청소년, 대학생 등 버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다. 구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철타고 독립기념관 가고 싶어요!'라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고 기뻐한 생각과 함께 시에 꼭 필요한 교통사업이라고 판단해 시민이 힘을 모아 성취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천안서북서, 전통시장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 실시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추석명절 대비 사전 범죄예방을 위해 성환이 화시장과 성정동 별빛우물성정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탄력순찰 홍보물티슈 및 빈집일이 범죄예방 안내를 등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시 '공튜버'(공무원 유튜버) 시정 홍보 나선다

5명의 공무원을 시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할 홍보대사 위촉



5명의 천안시 공무원들이 유튜브 버로 변신해 새로운 방식의 재미있는 시정 홍보에 나선다.

천안시는 11일 5명의 공무원을 시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할 홍보대사인 '공튜버'로 위촉했다고 밝혔

천안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정보화 미래의 틀 제시

천안시정보화위원회와 정보화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 참석

천안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시정보화위원회와 정보화 관련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정책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의 지능형 정보화 실현으로 시민 행정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 생활, 환경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 특성과 장기발전이 부합하

는 정보화 지표와 향후 5년간(2020~2024)의 중장기적인 천안시 정보화비전을 담자 11월에 있을 최종보고회에서 제시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현황, 수요조사 등 종합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보화 미래 모델과 정보화 수요, 추진방향에 대한 각 분야별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 6월 7일 착수보고회 이후 정보통신기술(CT) 기술변화에 대한 현황분석, 전부서 대상으

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의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황과 수요를 분석했다.

현황분석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정보화비전 대응을 위한 조직,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안전·문화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적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용역은 시민행복 중심의 지능형 스마트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시민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안전 안심 도시', '매

력적인 도시' 4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32개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천안시 지능형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모바일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성, 유연한 연계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구분영 시장은 "천안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스마트도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 동남구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기관·단체 3개소 지정

원성2동, 천안침례교회, 농협 원성동지점 치매친화적 마을 조성 앞장

천안시동남구치매안심센터는 10일 원성2동 내에 위치한 3개 기관을 치매극복선도 기관·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센터는 앞서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와 천안침례교회, 농협 원성동지점을 치매극복선도 기관·단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중앙치매센터,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천안시동남구치매안심센터가 지정하는 각각 4, 5, 6번째 치매극복선도 기관·단체가 된다.

센터에서 이날 열린 현판 전달식에는 이혜경 원성2동장, 신정범 천

안침례교회 담임목사, 이종구 농협 원성동지점장이 참여했다.

치매극복선도기관·단체는 기관 공무원 전체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 사회문화 조성에 관한 치매과제나 교육을 이수하고 기억지킴이로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천안시동남구치매안심센터와 3개소 치매극복선도기관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치매 조기발견, 치매예방·치료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협력해 치매 걱정없는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황민자 동남구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친화적인 마을 조성은 지역주민과, 지역 내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사

업"이라며 "원성2동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동반자가 될 각 기관에 감사 표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학교상담 아웃리치 진행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미원)는 2학기를 맞아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학교상담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9일 천안삼거리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3일 천안상업고등학교까지 9개 초·중·고

6,5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위기(가능)청소년을 발굴하고, 센터 서비스와 청소년전화 1388을 홍보했다.

센터는 학기가 바뀌면 변화를 경험할 청소년들을 등굣길에서부터 응원하고 격려해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벗이 되고자 연중 청소년을 찾아가는 등굣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청소년 모두 힘든 일이 있을 때 센터를 찾거나 1388로 전화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충동과 위기지원 서비스,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화(041-622-1388)로 연락해 문의 및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짧은 추석 명절 연휴 대전·충남 평온한 명절 보냈다

대전·충남 큰 사건 사고 없고... 교통사고도 전년보다 크게 줄어

추석 연휴기간 대전·충남지역은 비교적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한 명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살인, 치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5대범죄는 전년 대비 276건→258건으로 6.5% 감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타범죄도 전년 대비 362건→344건으로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비해 일부 교통량이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였고 교통사고는 전년 49건에서 올해 34건으로 30.6% 감소하고 부상자는 전년 85명에서 올해 46명으로 45.9% 줄었다.

특히,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추석명절 종합치안은 활

동 이후에도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추석명절 이후에도 안전한 대전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순찰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도 큰 사건사고없는 명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 교통량은 지난해 보다 전체적으로 증가(9.3%)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일 평균 교통량은 73.7만 대로 전년보다 9.3% 증가했고, 추

석 당일에는 882만대로 전년 추석 당일보다 0.8%가 증가하여 일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서 정체를 겪었다. 교통량 감소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총 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30건(28%) 감소(총 77건 발생),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 감소했다.

충남 경찰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를 전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국도와 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에 일일 평균 360여명의 교통경찰과 의경을 배치하여 소통위주의 교통관리 및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정제 구간 헬기운항 5회 및 고속도로에 임행순찰차 3대(고속도로2, 국도1)를 동원하여 신호

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을 단속하는 등 교통사고요인 행위와 잠재운전 단속·계도로 고속도로 상 단한건의 교통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충남 교통경찰은 연휴기간 동안 23개 우회 안내입간판 설치, 교통 편의제공 82회, 환자수송 2건, 분실물 1건을 인계했고, 천안 동남서는 12일 오후 5시에 천안중앙시장 정문 앞 쓰러져 있는 노인(장○○, 78세)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 뒤쪽에 있던 구급차를 신속히 도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총 316건의 교통사고위험 예방과 친절한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정복기자

청양군, 학교주변 식품

안전 유해환경 단속

청양군(군수 김동관)이 가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와 조리업소를 지도·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등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이나 불량식품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조리·보관·진열하거나 정서저해 식품판매,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군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청양=정성범기자



충남경찰청장, 추석 연휴 고속도로 현장 점검 충남경찰청장은 민중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차량이 몰리는 귀성길 고속도로를 점검하고, 연휴기간 내 비상근무를 하는 고속도로수찰대와 항공대를 방문 추석연휴 특별교통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공주경찰서, 추석 명절 전 '공주애 파트너십 안심순찰'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지난 10일 강북지역 일원에서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시민협력단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명절 전 '공주애 파트너십 안심순찰'을 실시했다.



아산시, 불법광고물 근절 민·관합동 캠페인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0일, 시내 일원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민관합동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을 비롯해 충남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 회원, 수거보상제 참여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비람직한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



김태화 병무청차장, 병역정책 이해관계자와 정책소통가져 김태화병무청차장은 지난 10일대전 서구 전통시장인 도마큰 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회장, 사무총장 등과 병역제도 발전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온천지구대, 경찰행정발전위원회와 저소득가정에 후원품 전달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대장 정민봉)와 경찰 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원)는 지난 10일, 온양3동 관내 저소득가정 5가정에 대해 한가위명절 후원품들을 가정방문해 전달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긴급 재난 복구 지원 실시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8명을 투입, 지난 주말 태풍 '링링(LINGLING)'으로 피해를 입은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농가에 재난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세종시 “9월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15만 179건 659억 원 부과...16~30일 납부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179건, 659억 원(지역자원시설세 20억 원, 지방교육세 76억 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9월 30일까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분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토지는 주택부속 토지 이외의 전·답·과수원·임야·잡종지·나대지 등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번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044-300-7114),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은행 CD/ATM기, 모바일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종=김태선기자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확대

의정부·천안 꿈키움센터 확충 통한 지역 간 비행예방 교육원차 해소

최근 소년 강력범죄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도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사전예방'이 중요한 국가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각부 기소유에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 위기청소년 및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초 설치 당시 1만2924명이었던 교육인원은 '18년 31만3430명으로 26배가 증가했고, '18년 교육 수요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만족도 87.9%, 사회적응률 94.6%로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의 증가와 우수한 교육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일부 지역에만 설치·운영되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센터 미설치 지역의 교육생이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는 부담감과 교육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법무부는 '20년 경기북부(의정부)와 충청남도(천안)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 인정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신설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충청남도, 경기북부 지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기에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간 비행예방교육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초기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차별화하고, 소속기관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공감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청양경찰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특별치안활동

범죄 및 교통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실시



청양경찰서(서장 이관형)는 지난 11일 서장, 생활안전교통과장, 칠갑지구대 등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범죄 및 교통취약요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엔 실시한 전통시장 점검은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에

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활동에 반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청양경찰서는 평소에도 청양시장에 대해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해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장날에는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과 도보순찰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 3월 칠갑지구대 근무하는 김정훈 경위는 도보순찰 중 중이소피싱 피해를 예방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명절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호서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접수 결과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지난 10일,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464명 모집에 18,125명이 지원해 7.3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면접전형에서 전년 대비 지원자가 수가 15% 상승하여 10,441: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학생전형은 전년 대비 36% 상승한

8,37:1의 경쟁률을 보여 충남사립대학 중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동물보건복지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며 으면서 동물보건복지학과는 면접전형에서 28.7:1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면접전형 162:1)도 높은 경쟁

률을 보였다.

올해로 건학 41주년을 맞이하는 호서대는 대전·충청 사립대 중에서 모집정원이 2,881명으로 가장 큰 대학이며 천안, 아산, 당진의 특성화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학부제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온라인 민원해결 '소터민' 홍보

태안소방서, 소방관련 민원업무 간편하게 해결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온라인 시스템 소방민원센터(이하 소터민)를 활용하면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터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

원서비스로는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신청 등이다.

소터민 이용은 인터넷사이트(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소방 민원업무를 신청·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계자는 '소터민을 이용하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태안=김정현기자

올바른 소화기 상식... 초기화재 '대응'

아산소방서, 사용법 홍보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화재발생 시 시민들이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초기진압에 힘쓸 수 있도록 소화

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아산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각종 소방훈련 시 소화기사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에도 교육용 소화기 체험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진압방법은 먼저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 후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고 ▲비밀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해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화재로 향해 약체를 뿌리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추석연휴 안전은 공주소방서와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119서비스에 대해 홍보 나서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추석 연휴동안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119서비스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해 추석 연휴 119신고 출동유형을 분석해 년 결과 총 140건의 출동 중 구급출동이 119건으로 85%를 차지했고, 화재 및 범죄제거 등 소방활동이 21건으로 15%로 나타났다.

구급출동 유형은 질병으로 인한 이송이 68건 57%, 사고부상 27건 23%, 교통사고 21건 18%, 기타 3건으로 명절 연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연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면 응급환자 처리와 119구급차 이송이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 당번 병의원과 약국 정보, 전문기의 질병상담 등의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긴급상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119구급서비스를 잘 활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초등학생 대상 교육청 견학 프로그램 성료

세종시교육청, 5개월 간 세종시 12개 초등학교 60학급 총 1,352명 학생 참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4월 시작한 「초등학생 대상 교육청 견학 프로그램」이 9월 중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초등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청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약 5개월 동안 세종시 12개 초등학교, 60학급 총 1,35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교육청에 도착하면 견학에 관한 사전 설명과 함께 교육청의 역할과 부서소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안내 영

상을 시청을 했다.

이후, ▲OX 퀴즈 풀이하기 ▲부서 방문하기 ▲세종시와 안전이 마스코트 인형 탈 써보기 ▲세종시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응원메시지 남기기 ▲교육청 옥상 정원 총 5가지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 또는 응원메시지 남기기 활동의 경우 학생들은 '특별실 확대 설치', '학교내 놀이 공간 확보' 등과 같은 시설물 개선 관련 내용과 '현장체험학습 확대',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 '체육·미술활동 확대'

등과 같은 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선 관련 내용,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한 내용 등 다양한 의견들을 냈으며 그 밖에 교육청 직원들과 교육감님에 대한 감사인사 등도 다수 남겼다.

김선식 교사(아름초)는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교육청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관계자들을 만나 평소 궁금해 했던 내용들을 해소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며, "또한,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송예빈, 박준호(아름초 4학년) 학생은 "이번 견학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 보람찼다"며, "나도 나중에 교육청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졌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권순우 소풍담당관은 "교육청 견학 프로그램이 자라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내년에도 더욱 재미있고 알찬 교육청 견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대선기자

보령교육지원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협의회

교육장 비롯한 업무담당자, 상담자원봉사자 참석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은 10일 교육장을 비롯한 업무담당자, 상담자원봉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하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2019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하반기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자원봉사자 학교 배치와 학교 상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친밀감 형성을 위한 활동 사례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상담자원봉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진호 교육장은 "학생상담자원 봉사활동은, 봉사자의 자아실현은 물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과 학교 적응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학생상담에 대한 기본소양과 지질을 갖추고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봉사자를 말하며, 보령은 현재 총 14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하반기 봉사자 추가 모집,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 및 세부일정에 관한 내용은 보령교육지원청Wë센터 이현미(전문상담사, 980-6383)에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보령=김정미기자

여름방학 9개교 석면교체에 16억원 투입

대전시교육청 학교석면교체 2027년까지 지속추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9년 여름방학중 대전전지다지인고 등 9개교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면교체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도 개정된 '학교시설 석면해체 제거 안내서(교육부)'에 따라, 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석면철거 전과정을 확인 점검하여 불안감을 해소하였고, 예산편성된 학교 의견수렴과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감독자를 복수로 배치하여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고용노

동부의 석면해체제거업체 평가등급을 적격심사시 반영하여 견실한업체가 선정되도록 제도개선하였다.

대전시 관내 석면지체는 251교에 73만㎡(면적비율 22%)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완전해소를 목표로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시설과장은 "석면철거과정에서 학부모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전문가를 참여시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낙과 피해 농가 방문 일손 돕기 나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유미선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17명과 함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논산시 가야면 일원의 과수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직원들은 강풍에 떨어진 배를 수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관악·관현악 합주부 3년 연속 충남 최고 영예

당진중, 제58회 충청남도 학생음악 경연대회 3년 연속 금상



당진중학교(교장 이한복) 관악·관현악 합주단 학생들이 제58회 충청남도 학생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해 2개 부문에서 관악과 관현악에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충청남도 학생 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제58회 충청남도 학생음악 경연대회는 중학교 4명과 고등학교 1명 총 6명이 국악합주, 합창, 양악합주 분야에 참

가했다.

당진중 관악 합주단은 'Cappadocia'를 연주해서 대학생도 연주하기 어려운 곡을 잘 소화시켜 연주했다. 관현악 합주단은 '경기병 서곡'을 연주해 중등부 관악합주 부문과 관현악 합주 부문 2개 부문에서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당진=최근수기자

행복UP 운곡 배움터에서 전하는 학교 이야기

운곡초, 2학기 학교 교육과정설명회 및 수업 공개의 날 운영



운곡초등학교(교장 이택현)는 지난 10일 교실 및 강당에서 운곡 교육가족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2학기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와 교실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했다.

2019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는 창의인성을 키우는 행복 UP 은곡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경영 의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렴 연수로 시작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행복 공간 소개와 더불어 2학기에 운영될 주요 교육과정을 안내했다.

다음으로 교실로 입장해 자녀들의 교육활동 모습을 직접 참관하는 전체 교사의 교실 수업 공개가 이루어졌다.

모처럼 농촌의 바쁜 일손을 잠시 접어 두고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들은 휴식 시간 틈틈이 학교 내에 새롭게 조성된 건강 편의 시설과 따뜻하고 아늑한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자가 앉아보기도 하고, 담임교사와 자녀교육과 생활지도에 대한 상담 시간을 갖는 등 교육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청양=정성범기자

공주대 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2,383명 모집에 17,135명 지원해... 7.19:1의 경쟁률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는 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결과 2,383명 모집에 17,135명이 지원해 7.19: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예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실기전형에서 309: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207:1, 인문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33:1,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772:1, 공과대학(현안) 건축학전공 9.68:1, 산업과학대학(예산) 특수동물학과 11.4:1, 간호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 105:1 등이 각 단과대학별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주=정성범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초등 순회보건교육 실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관리 강화하기 위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경신)은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 27개교의 5,6학년년을 대상으로 순회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순회보건교육은 보건교사 미배치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나 안전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과 특히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7차시 이상을 창의적 체험활동 및 관련교과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 일선 학교의 보건교육과정을 체계적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회과정은 ▲성교육 ▲야불온암용 및 흡연예방 ▲응급처치 ▲정신건강 등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업무 담당교사에 대한 정보제공·조언 등 멘토 활동 ▲학생건강상담 등의 활동 등 체계적인 보건업무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가경신 교육장은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aT와 상의하세요"

aT 'SMS 고객초청 워크숍'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의 소동활성화 및 고객접점 서비스 강화를 위해 9월 한달간 고객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지역·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추세다. aT는 2015년부터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발주·납품·보조금관리 등 전산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 School foo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을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88개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29개 센터가 SIMS를 사용하는 등 이용률이 33%에 달한다.

이번 고객 초청 워크숍은 SIMS를 도입한 경북·경남·울산·전북·제주 등 5

개 광역시·도의 29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 및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SIMS 기능개선 설명 및 고도화 시스템 시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aT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경북광역학교급식센터 및 경북도청 SIMS 고객을 초청, 1차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되는 식재료 표준체계 변경내용 설명, 급식센터 현장의 예로사항 청취 등 정보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급식 사업모델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2차 워크숍은 오는 18일 경남도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를 초청, 개최되며, 9월 말까지 울산·전북·제주 등 총 5차례 SIMS 고객 초청 워크숍이 이어진다.

송병배기자

불법행위 근절 위한 특별 지도·점검

충남교육청, 학원 불법행위 인터넷 모니터링 후 현장점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관휘 행정과장은 "전국적인 유아 영어학원의 증가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습비 인장화의 계기로 삼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아산교육지원청, 2019 흡연예방캠페인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은 11일, 학생 흡연을 감소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양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

온양중고등학교와 연합해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최근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 학생 이용률 증가 우려로 인해 냄새 안 나고, 모양도 예쁘지만 유해한 전자담배에 속지 마세요 등 흡연예방 문구가 새겨진 큐브형 포스트잇&연필꽂이 배부를 실시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USB 모양의 세련된 디자인과 좋은 향기로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일 수 있으며, 기존 담배보다 유해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니코틴과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특히 니코틴은 성장기 두뇌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청소년들이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흡연예방교육이 필수적이다.

아산=리랑주기자



홍성교육지원청, 제58회 충남 중등학생 음악경연대회 개인부문 개최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주도연)은 지난 10일 21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제58회 충남 중등학생 음악경연대회 개인부문을 관천중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천중학교의 가야금 중주와 갈산중학교의 현악합주 공연이 이루어져 경연대회 이상의 음악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시작됐다.

태풍피해농가 긴급일손돕기 나서

아산시, 과수 재배지역 26농가 16ha 투입... 낙과 피해농가 지원 구슬땀 흘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7일 역대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일손돕

기에 나섰다.

음봉면과 둔포면은 전국적인 배 주산단지로 피해조사가 끝난 농가의 낙과 처리를 위한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피해현황은 낙과피해 과수 농가의 경우 614농가 면적 623ha 시설 파손은 21농가 3.48ha 도복피해 벼는 60농가 면적 32ha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10일 아산시 공무원,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총 228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과수 재배지역 26농가 16ha에 투입돼 낙과 피해농가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11일에는 긴급복구 인력 300여명이 추가 투입돼 낙과 피해농가 및 농업용 시설물 철거 등을 지원해 농가가 신속한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박승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추석을 앞둔 농가의 시름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농촌 복구작업에 전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에서는 농정과 및 각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아산원에농협협동조합과 함께 일손지원 창구를 통해 긴급복구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접수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장터 '인기'

지난 4일~10일 21곳 개장...판매액 2억5천만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에서 운영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2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청양군에 따르면, 강서구청과 도봉구청 등 21곳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는 건고추, 고춧가루, 표고버섯, 과일류, 잡곡, 농산가공품 등 지역특산물 판매업체 19곳이 참여했으며, 건고추와 고춧가루, 표고버섯, 팥 등 준비 물량이 조기 판매되며 인기를 증명했다.

청양 농특산물은 품질이 뛰어난데다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청양군 관계자는 "전국 직거래장터에서 높은 인기와 구매율을 보이는 농·특산물이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판촉행사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 직거래단은 수익금 일부를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나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도농상생 공감대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청양=정삼범기자

서산시 올해 9월분 재산세 248억원 부과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올해 9월 재산세 11만6천건 248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10만4천건에 222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만2천건에 26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4억원(6.1%)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4.9%) 및 산업단지 과세 전환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 납세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1899-0019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재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김정환기자

9월 정기분 재산세 등 458억원 부과

아산시,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11만건)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95억원, 주택분은 6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1%인 1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시는 7월 주택분 20만원 이하 연납시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분

(1/2)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 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남도립대생 성격유형검사 실시



계룡시 '정부예산 82억5천만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원 등 특별교부세 13억원 추가 확보

계룡시는 2019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82억5천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시의회 및 국회의원과의 연계 협력하여 국회, 행정안전부, 충남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 필요

성, 시급성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원 ▲금바위다리 보수보강 공사 2억원 ▲지능형 CCTV 구축 사업 3억원 등 총 13억원이다.

특별교부세 확보로 내년도 엑스포 지원사업 추진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재정부담 감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삼범기자

노란우산공제 단기간 내 폐업 등 공제금 수령 시 원금보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자료대표 발의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 법률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단기간 내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이 발생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한 그간 납부한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영세 소상공

인의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부터 세 부담이 완화되는 퇴직소득제로 과세방법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제금 수령자 대부분이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었으며, 특히 가입 후 1~2년 내 폐업 시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월 45만원씩 부금을 1년간 납입하고 폐업한 A씨의 경우 납부원금은 540만원, 실수령액은 약 530만원으로 납입원금 대비 10만원을 적게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

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 시 약 10만원의 세액이 절감되어 납부원금을 보장 받게 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사례가 일부 발생해 현장에서는 예외를 호소했다"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이 높은 김정우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준 덕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히며,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정부가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송병배기자

aT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4일부터 3일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2019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Asia Fruit Logistical)'에 참가해 사인머스켓, 파프리카, 양파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홍보했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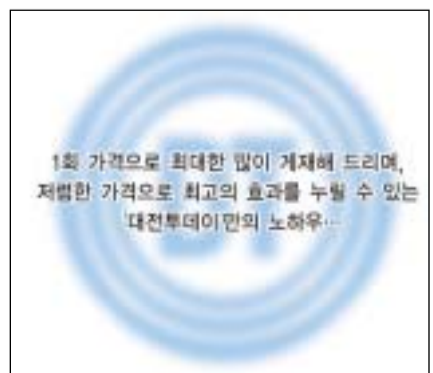
이번 박람회에는 최근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홍콩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 유럽, 미주 등 전세계 신선 전문바이어가 다수 참가했다. 홍콩은 모든 신선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식품시장에서도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T는 국내 수출업체 14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포도, 토마토, 배, 버섯, 감귤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 결과, 총 2500만 달러의 수출상담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사인머스켓은 뛰어난 당도와 식감으로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무지개 방울토마토도 다양한 색과 아삭한 맛으로 홍콩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aT는 최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해외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양파와 연내 중국 시장 진출을 앞둔 파프리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류스타이자 K-Food 홍보모델인 그룹 '아스트로(Astro)'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파프리카 스틱, 양파 샐러드 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송병배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다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우리/동/네

당진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착수

보유 관광자원 연계성 높여... 필요한 관광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는 것 목표

당진시는 지난 10일 용역 보고회를 갖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 상품연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당진형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과 연계해 실행 가능한 집중투자대상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관광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당진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과 기존 관광자원 조사 및 문제점 파악, 향후 관광 추세 분석, 자연, 역사, 산업, 인문자원의 분야별 관광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광지점지역의 랜드마크 발굴과 브랜드 구축방안, 생활



SOC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과 단 위사업 발굴을 비롯해 기본 관광지

정비와 신규 관광지 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개발계획과 더불어 관광 상품 개발, 마케팅 방안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발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당진시는 다른 자치단체 관광자원의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시의 관광자원과 비교를 통해 연계 가능성도 모색하는 한편 실행 가능성이 높은 집중투자 대상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재원조달 방안, 상위계획 반영 및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계획도 수립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해 보유 관광자원 연계성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과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주요 도로변 잔해 신속 처리

도로보수장비 5대 투입... 낙엽·태풍 잔해 쓰레기 수거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어지럽힌 간 관내도로 정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관내 주요 도로에는 부러진 나뭇가지, 낙엽, 어지럽게 날린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도로 배수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시는 태풍 잔해를 신속히 처리 중이다.

도로과는 공무원, 도로보수원 총3명과 도로보수장비 5대를 투입해 낙엽 및 태풍 잔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도로변 낙엽과 쓰레기를 정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일 '모드킵 예방 캠페인' 및 청소를 진행하는 등 예방적 도로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과 시민을 위해 태풍 피해 복구 도로작업에 최선을 다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살림규모 7161억원·5년 연속 채무 '0원'

2018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균형지수 100% 달성

태안군이 2018년도 지방재정균형지수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무리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태안군의 지난해 자체수입과 의존재

원, 지방채 등을 포함한 총 살림규모는 7,161억 원이며, 특히 유사자

치단체의 평균 채무 규모가 39억 원(1인당 채무액 평균 4만 1천 원)인데 비해 태안군의 채무는 0원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공유재산은 2018년 말 기준 1조 4,606억 원 규모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인 1조 4,562억 원과 비교해 44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군 단위 지자체와 비교해 재정건여건이나 규모면에서 양호한

청양군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치료비 확대 지원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

확대 내용은 정신과 질환진단검사 비용, 외래치료 비용,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상담 비용 등이며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한

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군내 초·중·고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큰 사업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군은 또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프로그램 늘

리치료 및 음악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양교육청 WEE센터와 심리치료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 개인 및 집단치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성인이 되어

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며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는 요즘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940-4542)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동참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김광식, 이하 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일,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아산시사랑상품권으로 추석 맞이 장보기를 실시했다.

아산시사랑상품권은 아산시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

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 할인된 판매되고 있다.

공단은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공단 홍보 채널에 아산시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직원들에게 아산시사랑상품권 구매를 독려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서 아산시사랑상품권 구매를 확대하여 지

역 자금 역의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역 물품 구매 활성화, 아산시사랑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 일손 돕기,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읍·면·동 주민총회로 65개 사업 발굴

시 전체 인구 중 2560명 참여, 광장 민주주의 실현



당진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당진 14개 읍·면·동 각 지역별 실시된 주민총회에 총 256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총 65개의 마을사업을 시흥기로 결정

했다.

주민총회는 마을계획 동아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발굴한 의제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전자투표를 통해 사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이 실행에 동의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광장 민주주의와 풀뿌리 주민자치치를 표방한다.

당진시는 지난해 당진형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5개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시범 도입한데 이어 올해 14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각 읍면동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각 지역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에 필요한 자치사업을 발굴해 추진토록 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총회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2560명으로, 이는 당초 시가 올해 참여인원 목표로 잡았던 전체 인구의 1%보다 많은 1.5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인구 대비 주민총회 참여비율이 높았던 곳은 올해 주민총회가 처음 실시된 대호지(6.4%), 정미(5.6%), 면천(3.1%)으로 조사됐으며, 송악읍은 32명의 주민이 참여해 14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했고, 당진2동과 당진3동

은 지난해 주민총회에 비해 각각 145명과 94명의 주민참여가 증가해 자치활동에 대한 식지 않은 시민들의 열정을 보여줬다.

주민총회안건은 '공중화장실 물레카메라 퇴치'를 위한 민관합동점검'을 비롯해 모두 9건의 안건이 주민총회 의제로 선정된 신광면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3~7건의 사업들이 발굴돼 총 67개 사업이 주민총회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중 당진1동 마을사업 의제 중 하나인 '남산공원 주차장 정비사업'과 당진2동 마을사업 의제인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대회 개최'는 전자투표로 부결됐는데, 이는 주민총회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의사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 한 사업은 각 읍면동별로 2000만 원의 사업비 내에서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정되어 추진되며, 사업의 성격별로 시민참여예산이나 도민참여예산공모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충남학 프로그램' 개강

지역의 역사·문화 정립에 앞장서고 있는 태안군이 '2019 하반기 충남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하반기 충남학 프로그램에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의 충남학 강사 11명을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 자체 태안학 강사도 5명을 선정해 특강을 실시한다.

강의는 충남학 11강, 태안학 5강으로 진행되며, △충남 유학의 맥락과 학풍 △충남지역 향일 독립운동 △충남의 여성문인과 문학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물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성격 등 충남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답사도 실시하는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2019 하반기 충남학 프로그램'에는 4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 55명이 수강신청을 했으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전액 군에서 지원한다.

개강식에 참여한 가세로 군수는 "애환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충남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행복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청양군(군수 김돈관)이 토지 및 주택(2기분) 3만3688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9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토지나 주택 거래 시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납부 신청자는 자동차세납(9월 30일) 이전 전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온양6동 행복키움 행복한 법상추진

아산시 온양6동 행복키움추진단(동장 김병철, 단장 이범영)은 지난 10일, 읍내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행복키움 특화사업으로 추석맞이 '행복한 법상' 사업을 추진했다.

이 날 행사는 명절연휴 급식 공백기에 저소득 어르신들의 영양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서로 돕는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했다.

저소득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간편식 및 과일, 떡 등을 준비했으며, 어르신들이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아산 청년협동조합 '그리에서 컵라면 168개'를 후원했다.

이범영 단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맞이 '행복한 법상' 사업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들의 명절이 조금이나마 훈훈하고 풍성하게 다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동장은 "온양6동 행복키움사업에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이웃이 이웃을 돕는 더 따뜻한 우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가져다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우리/동네

특화시장 식당동 임대료 대폭 인하

서천군, 최저가 40% 인하로 긍정적 효과·서비스 향상 기대



서천특화시장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선도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2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는 등 꾸준하게 양적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방문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식당동의 높은 임대료로 인해 비싼 음식 가격과 서비스 저하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늘고 상인들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중화되어 점포를 포기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의 공유재산법에 의한 최고가 입찰방식은 입점 희망자들 간 경쟁을 일으켜 점포를 낙찰받기 위해 무리하게 입찰 가격을 써내 터무니없이 높은 1년 임대료를 결정했다.

군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동 입찰 최저가를 기존의 점포 감정가액의 5%에서 3%로 대폭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입찰 최저가를 점포 감정가액의 3%에서 5%까지의 요율로 산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작년까지 감정가액의 5%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3%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시행을 통해 입찰 최저가가 40%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입찰 최저가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낙찰가도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담당 부서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입찰 최저가를 낮추자 낙찰가도 하락하게 됐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식당동 3개 점포의 모집공고에서 1,000만 원대 중후반으로 낙찰돼 기존 가격보다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임대료가 급격히 낮아져 입찰 최저가 인하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군은 10월에 모집공고를 하는 식당동 5개 점포에 대해서도 낮아진 입찰 최저가를 적용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특화시장 상인회, 상인들, 전통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계룡시, 145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계룡시는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억1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노후경유차 145여대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우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단, 공고일(2019.9.11.)로부터 1년 이상 계룡시에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자동차 검사결과 정상 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차량의 정상운행 상태 확인을 위해 접수 시 대상차량을 가지고 와야 한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자가용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함께 폐차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게 1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병행 시행한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휴기간 비상방역대책반 가동

논산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진드기 매개감염병 등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진드기 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한다.

시는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방역체계를 24시간 유지하는 한편, 질병관리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각종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업무체계도 가동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조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41-746-8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軍문화축제 세계평화 콘텐츠로 준비 착착

계룡시, '지상군페스티벌'과 손발 맞추며 손님맞이에 온 정성 기울여

계룡軍문화발전재단(이사장 최홍욱)은 '2019계룡세계軍문화축제'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활주로를 중심으로 연사, 금암 등 시내 일원에서 총 7개 분야 35종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재단은 軍문화축제의 특성상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기획단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막식 이전, 기반시설 설치, 행사에 녹여 넣을 콘텐츠 조율, 편의시설과 교통대책 등 축제준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또 해군, 공군, 해병대, 미8군 등 축제에 참여하는 각각의 군기관들과도 관광객에게 보여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챙기고 있다.

이번 행사는 Pre-EXPO로 치루는 만큼 해·공군, 해병대가 참여하여 내년의 EXPO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인트를 활용해 해군 홍보관, 공군홍보관을 설치하고 체험존, 전시존, 역사존, 이벤트존을 꾸민다.

UN군의 역할과 의의를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UN홍보관도 설치한다. UN참전국 티투 체험, 유엔 평화유지군 푸른 베레모 만들기, 네덜란드 참전용사 사진전도 준비 중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의



의를 살펴보고 애국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인 특별 전시관을 설치하여 임시정부 사진전, 문화재 태극기 사진전도 열린다. 특히 올해 축제에 태극, 몽골, 베트남 등 해외군악대를 대거 초청하여 보기 드문 풍성하고 알찬 이색적인 콘텐츠 준비에 여념이 없다.

활주로 하단 병영안보체험장에 상설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계룡시와 육군이 이번 행사부터 상설 공연장을 행사 주공연장으로 선정하고 개·폐막식을 비롯해 주·야간행사와 공연을 이곳에서 치르게 된다.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주공연장에서 '계룡세계軍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이 공동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개막식은 민·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8군 및 해외군악대 마칭공연, 개막선언, 축전영상 시청, 헌병 MC 퍼레이드, 지상군페스티벌 홍보대사인 걸그룹 CLC의 축하공연을 펼친다.

개막식 야간공연은 7막으로 구성된 하나의 Story로 계룡시에서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평화의 목소리가 주공연장에서 펼쳐지고, 6일 폐막식은 축제의 성공적인 폐막과 EXPO의 시작을 선포하는 색다른 연출을 계획 중이다.

축제 시작과 함께 폐막일인 6일까지 육·해·공군 전시관을 운영하고, 전차, 장갑차 등 장비탑승, 특전용사 도움 아래 고무보트를 타고 어 보기 드문 풍성하고 알찬 이색적인 콘텐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또 헬기 시뮬레이션, 로봇 장갑차, 외출 및 세울 타기, 경사판 오르기, 군대의 변천생활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축제기간 내내 무궁무진하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평소 갈 수 없고 행사기간에만 개방하는 계룡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안보등반대회, 장병 군가합창대회, 국방TV 장병위문열차 공연, 육·해·공군 군악의장대와 해외군악대가 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시가지 퍼레이드도 준비 중에 있다.

축제를 준비 중인 軍문화엑스포지원단은 이번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전 직원들이 '계룡세계軍문화축제'의 앞장 준비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원호 軍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계룡세계軍문화축제를 엑스포의 원년으로 삼아, 참신한 콘텐츠 발굴, 국제행사에 걸맞은 세계평화 프로그램 신설 등 그동안의 축제 수준을 뛰어 넘는 야심찬 각오로 축제를 준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홍욱 계룡시장은 "무엇보다도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무사고 안전축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자원봉사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반드시 성공적인 축제를 이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 계룡시 위상을 제고 시키겠다"고 말했다.

통정
간부회의

노박래 서천군수= 16일 오전 8시 30분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서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부여군, 가족과 함께 백제놀이터로 GO! GO!

부여군(군수 박정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운영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백제놀이터로 GO! GO!'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백제문화권 부여를 바로 알고 가족 간 유대감을 함양하고자 부여군이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백제에서 놀이가 주관하는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100여명의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하여 지역문화 유산의 가치 및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군은 향후 이달 중 부여박물관에서 함께하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과 10월중에 굿뜨래 글램핑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식 변화 유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생명사랑 365일 우리모두 함께해요'

논산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펼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0일 시민공원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생명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자살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자살예방 퀴즈 맞추기', '둘러라 볼펜만', '생명사랑 인식도 조사'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뤄졌다.

또, 보건소 직원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등 지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홍보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총출력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고 소외받는 이웃없이 누구나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성기자

논산시 태풍피해농가 일손 돕기 실시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및 농가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군인 등이 함께 일손돕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낙과치우기, 하우스 비닐 교체작업, 벼 세우기 등에 나섰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관내 507농가, 244ha에 피해가 발생해 가을철 수확을 앞둔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활동 위주로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9일 기준으로 28농가에서 일손 돕기를 희망했으며, 그 수요가 점

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석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원상 복구에 주력하고, 피해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천군 드림스타트 '온 가족 행복 요리교실' 진행

서천군(군수 노박래) 드림스타트에서는 11일 드림스타트 대상 44명과 함께 서천요리아카데미학원에서 추석 맞이 명절 음식 만들기 '온 가족 행복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취지로 시작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요리의 즐거움과 다가오는 명절의 기쁨이 배가되는 시간이 됐다.

이번 요리교실에서는 모시 송편

빚기와 갈비찜을 만들어보며 특히 다문화 가정에 한국의 명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체험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한 주민은 "가족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고 베트남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고향 음식을 만들어 보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원래 서천군 사회복지실장은 "마음을 담아 만든 명절 음식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더 다가갈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65회 백제문화제 1481년전 백제 성왕 사비천도 재현

538년 백제사비천도 역사적 사실 근거로 800여명 천도행렬단 구성



제65회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사비천도행렬이 백제문화제

개막 당일인 오는 28일 열린다. 사비천도행렬은 538년 백제 27대 성왕이 백제중흥을 기치로 내세우며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재현된다. 올해는 단순한 역사 재현행사를 넘어 참가 폭을 확대하여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부여중학교부터 메인 행사장인 구드래 주무대에 이르는 약 2.7km 구간에 각계 각층의 군민들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이색적인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사극 연기자처럼 전문 분장사의 분장과 연출 감독의 연기 지도를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사비천도행렬은 벌써 65회째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참가자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하였다"면서 "가을 축제를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동양대학교 게임학과와 공연학부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여 행렬 중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천도행렬단이 구드래 주무대에 도착하면 도읍 천도를 하늘에 고하고 국대대하여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부여군이 주최하고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비천도행렬은 '백제의 동행'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부여군민이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오는 20일까지 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공지사항란에서 별도 양식을 작성 한 뒤에 주 관대행사 메일(jb@unimotto.co.kr)로 접수하면 된다

부여=김성규기자

통정

인권보장위원회 위촉식



김정섭 공주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한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정기회의



맹정호 서산시장은 16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정기회의에 참석, 오후 4시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이해를 위한 시민아카데미에 참석.

교육장 및 국과장 정책 워크숍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6일 오후 2시에 웨스트피아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교육장 및 국과장 정책 워크숍에 참석.

김동일시장·이낙연 국무총리 대천항수산물시장 방문

보령시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일 보령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대천항 수산물시장 및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해안 최대의 수산물 유통단지인 대천항 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물가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후 도서주민들의 이동 수단인 여객선 터미널의 출항점검 및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이낙연 총리는 먼저 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수산물 및 건어물수급 판매 동향을 들어보고, 이른 추석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건어물의 경우 각 수산물의 주산지는 보령이 아니지만, 일부러 대천항까지 오셔서 사가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한 상인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물품 관리와 신선함을 갖춰나가고 있고, 친절하게 고객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매년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4개 수산 및 건어물 가게에서 200만 원 상당의 명품과 대하, 다시마, 꽃게 등을 구입해 보령지역의 장애인 생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육아시설 등 4개 시설에 각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내리기 못하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위로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2017년 보령 및 부사지구의 가뭄 피해 현장 이후 보령을 두 번째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천항 수산물시장은 전국 최고의 수산물 유통단지라는 자부심으로 친절과 정결, 정량 판매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수산물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보령=김태성기자

공주시, 2020년 공모사업 5건 선정 쾌거

지역문화재 활용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공모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5건이 2020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 △생생 문화재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2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등으로, 이들 사업에는 총 7억 1250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4년 연속 선정된 문화재 야행은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쁘다'라는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근대 문화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7년 연속으로 선정된 종현서원을 활용한 '종현을 담은 꿈꾸는 서원'과 2020년 처음으로 선정된 종절사 명탄서원을 활용한 '공주를 추모지향으로 꿈꾸다' 등으로 서원을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찬 '공주 문화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근대'를 주제로 문화재를 역사 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구공주읍사무소와 공주제일교회를 활용

하는 공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찬 '공주 문화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근대'를 주제로 문화재를 역사 교육의 장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서산시 대기 질 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물량은 총 600여대이며, 신청 대상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3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유무는 인터넷의 배출가스 등급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서산시에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서산종합운동장 남문 주차장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정상기능을 확인 받은 후 접수가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 시청 환경생태과 ☎660-

3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서산시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신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질소산화물 등)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확 달라지는 금산인삼축제 '건강체험관' 조성

의료 신기술 걸맞은 VR(가상현실) 체험관 신규 운영

제38회 금산인삼축제(9월 27일~10월 6일) 기간 중에 문을 여는 '건강체험관'이 달라진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건강체험관'은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글로벌 건강체험의 진수를 엿볼 수 있다.

올해에는 한국, 중국, 몽골의 세계 전통의학 체험이 보강됐으며, VR(가상현실) 건강체험 부스가 새롭게 선보인다.

VR(가상현실)의 경우 건강스포츠투, 뇌기능, 체형분석, VR영상 등 건강 체험별로 주제를 정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의 국민최대 관심사

인 건강트렌드에 맞춰 건강체험관 7개 부스를 추가로 늘렸고,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한층 보강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 건강체험관은 세계 전통의학 체험, 가상현실 건강체험, 인삼약초건강체험, 전문생활건강 등 4개 분야에 총 2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계 전통의학체험의 경우 마사지, 안마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각국의 전통의학한국, 중국, 몽골, 태국을 체험할 수 있다.

건강체험 필수코스인 홍삼족욕을 보다 편리하게 받아들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홍삼팩 피부관리, 한방차 시음, 한방척추치료, 인삼약초 보양만들기, 한방힐링팜페라피, 반식욕 코너도 한층 업데이트

된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다.

전문건강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음건강 검사, 두뇌건강검사, 한방척추치료, 폐기능 측정, 스트레스 검사, 사상체질검사, 골밀도 검사 등 전문인들이 건강을 돕는다.

생활건강체험 코너에서는 이철, 손발관리, 사상체질검사, 온열테라피, 마음건강검사, 두뇌건강검사, 안구건조증 치료체험, 자율신경, 체성분, 저주파 발관리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이화영 금산군보건소장은 "이번 금산인삼축제는 보다 많은 체험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건강콘텐츠 및 체험을 통해 올바른 건강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 수요자 중심 도면 제공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도면자료 구축을 위해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의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같은 축적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통해 등록전환 대상 토지를 추출하고 축락결과도 조사와 현지측량을 실시해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를 대축척화 하게 된다.

그동안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는 지적도와 축척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 4차 공간산업 관련 도면 제작 시 자료가 부정확하게 등재될 가능성이 컸으나, 이번 등록전환 사업을 통해 동일 축척화 및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해 정확한 도면자료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는 2018년에는 인지면, 음암면, 운산면의 임야도내 공유지 도로 107필지, 27천㎡를 완료했고, 올해 풍지역, 대신읍, 지곡면의 공유지 도로 207필지, 182천㎡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494필지 정리 완료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으로 현실과 일치하는 도로구간의 연속성 확보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로구간 이원화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해소로 재산관리의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실시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1일 산성시장과 시내버스터미널 입원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귀성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소를 활용한 편리한 길 찾기와 상세주소부여 제도 등 홍보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앞서 시는 명절을 앞두고 물류량이 급증한 관내 택배업체를 방문해 도로명주소 앱 사용법을 안내하고 관내도를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배송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했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추석맞이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공주시,리플릿·홍보용품 배부대시민 홍보활동 펼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0일 산성시장에서 '즐거운 추석명절 안전하게 보내기'를 주제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은 자율방재단과 인명구조대, 산성시장 상인회,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시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생활속 안전위험 요소 차단을 위한 안전신문고 활용방법,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등의 정보가 담긴 리플릿과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당부드린다"며,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공주시 중학동, 백제문화제 및 추석맞이 대청소

관광객과 귀성객을 깨끗한 세계유산도시 이미지 조성

공주시 중학동(동장 김기남)은 지난 10일 제65회 백제문화제와 추석을 앞두고 관광객과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세계유산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는 중학동 직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

마을회원, 예비군중대 등 50여 명이 참여해 먹자12길, 가구점길, 우체국길, 감영길 도로변 등을 돌며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강풍으로 떨어진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집중 수거했

다. 김기남 중학동장은 "중학동은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어 관광지로서 가치가 큰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해 깨끗한 중학동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부여 군민의 숙원 부여여고 이전하나

9월 중 이전부지 결정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부여여고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절차는 '사비왕궁터 발굴 및 정비사업'에 따른 부여여고 이전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하게 되며,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여교육지원청에서 이전부지 결정과 추진 절차 등에 대해 부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여여고 이전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된 부여 고도보존 사업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고도보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사비마을을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기존 추진계획이 2015년 백지화되면서 중단되었다가 2018년 3월 부여군에서 학교 이전을 요청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충남교육청은 부여여고 이전의 경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원칙적으로는 학교 이전을 요청하는 부여군 또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에서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에 지원금 거마를 위한 법령개정과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여여고는 일부 건축물이 50년 이상 경과(1동 교사 '62년, 2동 교사 '72년, 3동 교사 '68년, 4동 교사 '71년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 고도보존지구 내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신축·개축과 용도 변경이 제한되고, 이전 논의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속히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조속한 학교 이전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고 부족액 부담에 대한 협의는 별도로 추진하고, 이전부지 등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후, 학교용지에 대한 사전 토지 매수 협의,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진행한 후 2020년 초에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여지역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 통합 없이 부여여고만 단순 이전하는 점과 이전비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투자가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요한 항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 이전 사업비는 29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재원은 현 부여여고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약 15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146억 원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행정절차 추진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부여여고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부여지역 교육공동체의 학교이전에 대한 커다란 기대에 부응하고 부여여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여건 속에서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신속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공주시,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공주시(시장김정섭)는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주위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배재대 유학생 '유니캡스' 대전서부서와 명절 방문 활동
배재대 유학생으로 구성된 '유니캡스(Uni-Cops)'가 10일 대전서부경찰서 경찰들과 대학일원에서 추석 명절에 참찰활동을 펼쳤다. 유니캡스는 배재대가 2013년 대전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와 유학생 치안을 위해 결성됐다.

당진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개최

오는 18일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날! 주제로 열려

당진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당진 문예의 전당 일원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당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우리 기락 한마당 '민요메들리'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사랑 나눔 음악회, 2부 치매 인식개선 인형극 '브라보 유어 라이프 (Bravo Your Life)'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랑 나눔 음악회에는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 '엔젤스 파이어'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전해줄 예정이며, 인형극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떠나보내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부대행사로 ▲치매 조기검진 및 정보마당(치매안심센터관) ▲치매예방 인지프 프로그램 체험 ▲치매 위험도 검사 및 건강증진관 ▲치매어르신 작품 전시관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에게 치매와 건강



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이번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통해 치매극복을 기원하고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목원대 미술교육과

'제44회 졸업전시회' 개최



목원대 미술교육과(학과장 강주희)는 17일(화)부터 23일(일)까지 교내 미술관에서 '제44회 졸업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전 전시회는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4년 동안 재학하며 배우고 익힌 결실로 서양화, 한국화 등의 작품 34점과 교과교육학 논문 5편이 출품됐다.

졸업생 23명은 교사로서의 꿈을 키우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학을 비롯해 미술사, 미술치료, 미술이론 등 학문 소양을 쌓고 회화, 조소, 디자인, 관화 등 폭넓은 전공실기와정을 통해 창작활동에도 힘써왔다.

김태선기자

대전과기대 광고홍보디자인과, 제9회 호국미술대전 디자인부문 우수상



호국과 안보를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이라는 공모 주제로 대한민국 육군이 주최하는 최고 대령명상 훈격의 제9회 대한민국호국미술대전(2019. 3. 27~ 7. 4)에 대한 시상식이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9년 9월 4일(수)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총 1362점 응모, 1, 2차 심사로 이루어진 본 공모전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광고홍보디자인과 2학년에서(지도교수 나인선) 14점을 출품, 이 중 한 작품이 디자인 부문 우수상(배민수, 육군참모총장상, 상금 150만원), 특선 2작품(이혁진, 광미현), 입선 2작품(나윤이, 하예지)으로 최종 선정되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수상된 작품은 용산 전쟁기념관을 비롯하여 지상군페스티벌 등 전국 6개 호국안보관련 전시관에서 금년 12월까지 순회 전시가 이루어진다.

김정환기자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현판식 개최

미래 4차 산업시대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대 전환이루는 계기 삼아



한국영상대학교(총장 유재원은)는 지난 11일 대학본관 1층에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기념 현판식을 거행했다.

현판식에는 유재원 총장을 비롯해 학사부 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기획처장, 교수처장, 입학학장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총무처장 등 보직자 전원과 교직원들이 참여해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영상대학교는 지난 3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번 현판식을 통해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고 미래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대 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 대학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의미를 담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성범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석맞이 독거어르신께 따뜻한 한 끼 대접

유현수 셰프와 오정연 아나운서, 재능기부로 함께하며 사랑나눔 동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10일 유현수 셰프와 함께 독거어

르신 무료요양시설인 잔주강의 집(시설장 그레이스 수녀)에 찾아가 따뜻한 한 끼 봉사활동을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매년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최한 '전통시장장보기 행사'를 향상시켜 재래시장에서 질 좋은 식자재를 구입해 독거어르신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국가대표' 등 유명 요리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친숙한 유현수 셰프가 한식 메뉴 10가지를 직접 조리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래 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등이 걸걸이를 직접 만들어 대접했다. 또한 김원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부이사장과 이사로 활동하는 오정연 아나운서, 중소기업 연합봉사단이 애정을 보였으며, 식사 후에도 말벗봉사와 어르신의 생활시설을 정리정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 역량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제30회 아산설화예술제'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개최



아산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아산지회(회장 김원근)가 주관하는 제30회 아산설화예술제가 9월 27일(금)부터 9월 29일(일)까지 3일간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이하는 아산설화예술제는 '오늘 참, 멋지다 그대, 서른살의 아산 예술!'의 주제로 아산예총 8개지부(무용협회, 문인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음악협회, 영화인협회, 국악협회)와 지역예술단체 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문화예술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명망한 하늘을 가진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아산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

하는 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아산설화예술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예술인들의 진치한마당이다. 특별전시부스와 체험부스, 비록시장, 경품, 경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여주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멋진 예술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리영주기자



112무선봉사단, 자살예방의 날 충남도지사 유공표창 수상
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와 함께 아산시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한국 112무선봉사단 이의순 단장이 지난 4일, 2019년 자살예방의 날에 충남도지사 유공표창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방문활동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병원장 이성호) 직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난 9-10일 양일간 중증장애인생활시설 '로템', 중리중환자회복지관, 법1동행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기금전달 및 노력봉사활동을 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김흥장 당진시장, 태풍 피해 입은 농가 방문해 격려 당진시가 제 13호 태풍 링링이 남긴 피해 복구에 한창인 가운데 김흥장 당진시장도 지난 11일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를 입은 순성면의 과수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황인호 동구청장, 추석맞이 직원 오찬 배식 행사 황인호 동구청장은 11일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구청 구내식당에서 직원 300여 명에게 직접 배식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자원봉사 수요처로 사랑 나눔 실천 충청남도 개발공사(사장 권혁문)는 지난 4월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로 등록되면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런치박스 후원 받아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명호)은 10일 명절을 맞아 이웃백스테이크하우스 천안백포드점(점주 오정근)에서 런치박스(도시락) 후원을 받아 저소득 및 취약계층 12가정을 대상으로 도시락나눔이 진행되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여성회, 보훈가족 가사돕기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양갑숙) 회원들은 지난 11일 오전, 추석을 맞이해 삶이 어려운 보훈가족들을 찾아 송편과 밀밥찬 등을 전달했다.



이민식·이숙희씨 가족, 취약계층 추석 후원물품 백미 기부 아산시 모종동에 거주하는 이민식·이숙희씨 가족은 10일, 아산시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명절 후원물품으로 백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2,000kg(10kg*200포)로 지난 4월, 7월 백미 후원에 이어서 번째이며 가족의 이름으로 명절을 앞두고 백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밭대 자동차 동아리 '미라클' 팀 '국제대학생창작자동차경진대회' 수상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지난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열린 '2019 국제대학생창작자동차경진대회'에서 자동차 동아리 '미라클' 팀이 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도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안전학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올해 10회째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45개 대학, 64개팀 8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자동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한밭대 '미라클' 팀은 이 대회 2개 부문에 모두 도전하여 전기



자동차 경주부문 은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디자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에

이디어를 공유하고 전경별 전문 기술을 융합하는 쾌거 있는 도전을 보여줬다.

한밭대 '미라클' 팀 김도훈 학생(기계공학과)은 "각각의 전공 지식과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도를 계속해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라클' 팀을 지도한 기계공학과 신부현 교수는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하는 우리 한밭대의 모습이며, 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한 밑반찬 지원봉사



대한적십자 충남지사(회장 유창기)와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협의회 조리실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지원봉사를 실시했다.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과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1%나눔 진지방'은 대한적십자사 서산지구협의회 조리실에서 매주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봉사활동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 2015년부터 매년 5,000만원을 후원해 진행되는 이 봉사활동은 적십자 봉사원들이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현대오일뱅크 부녀회원들이 참여해 함께 밑반찬을 만든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 인문 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안보군사연구원(원장 영정호 교수)이 최근 '2019년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이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연구거점으로서의 육성 및 우수 학술 연구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은 향후 6년간(3년+3년)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전임 연구인력의 선발은 물론, 학제간 융·복합 연구체계 구축 등 미래 첨단 복합 안보전략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김정환기자

LX 대전충남본부, 밀알복지 재단에 이웃돕기 물품전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LX)는 밀알복지재단 대전·충청지부에 우리 쌀 28kg과 친환경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원식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LX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충남교육청-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11일 정책협의회에서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사장 이종렬)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체험 교육과 시민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충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양 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제반 사업에 대한 협력 등이다.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충남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충남 민주화운동 역사 편찬과 학술 연구 ▲민주화운동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강사양성과 민주시민교육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학기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주주의 역사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참여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대표 이정환)는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공주시의 어르신들이 뜻 깊은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지용 스님에 상품권 100장(금 1,000,000원)을 후원했다.

이날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 고객팀장 박경환, 대리 박승호가 방문해 공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용 스님은 "공주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품권을 후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공주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종지사 박경환 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후원이 공주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선언문' 채택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장시성)은 10일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직원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인권경영위원회는 한국효문화진흥원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제반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인권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총6명이 활동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인권경영 추진 사항 및 계획, 한국효문화진흥원 인권경영규칙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효문화진흥원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장시성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은 "효를 정착시켜 나가는 기관장으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통해서 우리 진흥원이 더욱더 한단계 성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김충남 인권경영위원(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또한 "인권경영체계 구축에 있어 진흥원이 앞서 나가고 있다"며 진흥원이 인권경영 선도 기관이 되는 데에 힘을 보탬 것이라 말했다.

이어진 인권감수성 직원 교육에서는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 "인권의 이해와 인권감수성"이라는 주제로 인권의 개념, 인권감수성의 특징 등을 강요하여 진흥원 내 인권 존중 분위기를 제고했다.

이정복기자



호서대 과학기술융합대, 추석 연휴 맞이

2019 교수·학생 한가위 축제 개최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지난 10일, 아산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2019 교수-학생 한가위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소통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렸고 송편과 식혜 무료 나눔, 한복 포토존, 윷놀이,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코너와 디퓨저 만들기, 풍선 터뜨리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양한 체험 코너들을 진행했다.

학생회 임원들은 개량 한복을 입고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유학생들도 다수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즐기는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한복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등 학생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행사 후에 과학기술융합대학 유학생과 지도교수, 국제협력원 교직원에게 저녁식사를 하며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멘토-멘티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 화강리 주민들, 마을가꾸기 구슬담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이장님 재중) 주민들이 추석을 앞둔 지난 10일 화단 가꾸기 등 환경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주민 110여명은 태풍 때문에 어수선해진 마을을 정리했다.

대투 논란



김헌태 논설고문

올 추석연휴가 빨리 온 탓인지 귀성 귀경 모두가 그야말로 가면서 오면서이다. 추석민심은 그야말로 절제된 분위기에 쌓여 있었음을 보게 된다. 들녘에는 곳곳에 쓰러진 벼들이 태풍 빙빙의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곳곳에 공원묘원에는 예나 다름없이 성묘객들이 대거 몰려 큰 혼잡을 빚었지만 귀경을 서두르는 모습이 어딘가 추석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라진 듯하다. 혹자는 절제된 추석이라는 표현도 하지 만 아직 찾아온 추석이 풍요로움보다는 다소 분위기가 다운된 것은 느낄 수 있었다. 하기가 추분이 오는 23일이나 본격적인 가을은 조금 남아있다는 느낌도 있다. 아직은 그야말로 이른 추석마저 가을처럼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 "가을이 왔으니 가을이 온 게 아니다"라는 느낌이다. 가을장마에다 태풍에다 이른 추석이 겹쳐 시절이나 주변이 여물지 못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벌써 9월도 절반을 지났다. 참으로 빠른 9월의 지나감이다. 2019년도 3개월 반 정도만 남아있다. 이제 2019년을 정리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하지만 유수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잊은 듯 사회는 온통 갈등과 분열,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서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추석연휴가 쉼없는 분위기와 흥흥한 민심을 그대로 부영하고 있다. 추석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각종 격렬한 집회와 시위는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늘 들끓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곳이 쫄쫄 떠돌아다니는 듯하다. 이렇듯 돌리려 하는지 애꿎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왜 이다지 대한민국 정치가 늘 격동과 시련의 연속인지 몰라도 모르 정도이다.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로지 당리당략과 이념논쟁, 개혁논쟁만 이 난무할 뿐이다. 행복한 사회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 는 너무나 '아니올시다'이다. 내년도 4월 15일에 제 21대 총선이 시작되니까 불과 8개월여 앞

이다. 벌써부터 물밑 선거전이 본격화되었다. 내년 총마예정자들은 지역에 내려와 얼굴 알리기에 바쁘다. 내년 선거를 앞둔 여야의 기 싸움은 아마도 거의 필사적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만큼 내년 선거가 여러 가지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의 쟁점은 아주 극명하다. 국민들의 이분법적인 대립과 분열도 우려된다. 정치권의 줄 세우기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선거가 과열은 넘어 극단적인 분열양상과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엄청난 후유증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벌써부터 진영논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각 정당들은 내년 총마자들의 경합으로 진통은 물론 늘 선거철마다 그렇듯이 이합집산도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도 추래불사추임에는 틀림이 없다. 분명 낙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5만 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실업자 수도 역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고용이 회복된다면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회복 덕이라고 하지만

지난 해 8월 취업자 수가 3천명으로 고용소크가 나타났던 기저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 문제도 있다. 취업자가 늘어난 산업은 17만4천명이 증가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농림어업 등 순이었다. 하지만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극단적인 분열양상과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엄청난 후유증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 벌써부터 진영논리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각 정당들은 내년 총마자들의 경합으로 진통은 물론 늘 선거철마다 그렇듯이 이합집산도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도 추래불사추임에는 틀림이 없다. 분명 낙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5만 명이 증가해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실업자 수도 역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고용이 회복된다면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회복 덕이라고 하지만

사설

수출·투자·소비 동반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가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부진한 모습"이며, "수출·투자·소비 모두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KDI에 따르면 8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6%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30.7%), 석유화학(-19.2%), 석유제품(-14.1%)에서 부진한 모습이 두드러졌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4.7% 감소했다. 건설시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는 52.7%, 주택 착공은 8.7% 감소하면서 향후 건설시장 부진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수요 부진이다. 7월 소매 판매액이 작년보다 0.3% 줄어들었다. 8월 소비 지출이 상승률은 전년 대비 -0.04%로 1966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3.4p 내린 92.5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은 물론 안전자산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며 '트리플(성장률·물가·금리) 마이너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선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여력이 점점 어려워지고, 무역의존도

가 높은 한국경제도 동반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진단과 달리 수요 요인에 의한 디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만약 '수요 감소'에 의한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 상품의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는 고용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증하고,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이뤄졌음에도 성장률이 추락하고 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 물론 경제가 일시적으로 가벼운 몸살에 걸렸을 때 재정확대와 같은 약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 구조조정, 노동개혁 같은 수술을 해야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이듯 국가 경제도 R&D와 인적·사회적 자본 같은 요소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도를 높여줘야 튼튼해진다.

3년이나 앞당겨진 인구위기

격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은 실제 우리나라의 생산인력 감소와 맞물리고 있다. 그냥 놔 두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년에 될 수도 있다. 물론 2040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통계청은 올 초 공개한 '미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에서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2028년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결과여서 더욱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고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통계청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탕에는 물론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 전망이 더 어두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이 숫자만 보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한다는 점이다.

다른 통계는 접어두고라도 2067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배가 되는 지금의 추세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서 국제 인구 유입이 총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마저 고민을 더하게 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크지만 하다. 부양 부담이 커지는 이유에서다. 우리가 짊어 보기 보듯 현재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7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인구감소는 지역사회 소멸과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이어진다. 수도권은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 앞으로 30년 내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물론 기초자치체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유인책을 내 놓고 있다. 귀농 이의 귀어 등 다양한 예가 도시의 인구를 풀려 하지만 과연 이런 성격의 지원이 출생률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여전한 의문이다. 줄어 보지만 이미 인구감소는 농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된 셈이다. 중앙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 이의 지방정부도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최근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몇몇 정책들이 지닌 적실성이 그렇다. 이를 정책에 활용하면 새로운 출구 모색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건강 칼럼

환절기 코감기? '아데노이드 비대증'과 감별 필요



김청수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환절기 코감기, 비염과 혼동하기 쉬운 질환이 있다. 아이가 오랫동안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거나 코골이를 하는 증상인데 시간이 지나도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 질환은 코감기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성장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에 대해 알아

본다. ▲구강호흡·코골이 지속되면 아데노이드 비대증 의심해봐 아데노이드는 편도선의 일종으로 코와 목 사이에 위치해 세균 등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조직이다. 보통 초등학교 중반까지 커지다가 이후 작아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급성 세균감염의 반복, 비강 또는 부비동의 만성염증 등으로 아데노이드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게 되면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연결해주는 통로가 좁아져 숨을 쉬기 힘들어지고 콧물까지 배출이 잘 안 돼 코막힘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 커진 아데노이드는 세균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고,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과 코와 목을 연결하는 비인두를 막으면서 반복적인 중이염이나 청력 장애를 유발시키고, 비염이나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구강 호흡을 유발시켜 구강건조증이나 기침, 코골이 등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며,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분비가 적어 성장이 지연되기도 한다. 특히 학생들은 주의력이 산만해져 학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기 때문에 인면골 발달 장애와 윗니와 아랫니가 맞지 않는 치열 불균형(개방교합, 교차교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심하면 얼굴 쪽이 좁고 길어지며, 아래턱이 뒤로 쳐져 마치 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얼굴형을 가지게 될 수 있다. ▲PITA 수술 통증 적고 회복 빨라 아데노이드 비대증의 확진을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문진과 별도로 아데노이드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목 부분을 포함한 측면 방사선 촬영 검사 또는 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아데노이드는 코 뒤쪽에 위치해 있어 일반적인 비강검사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아데노이드

라고 판단이 되면 이를 제거하는 수술적 방법이 확실한 치료법이다. 수술은 전정식 피막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PITA)로 피막 안쪽의 편도만을 미세 절제 흡인기를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PITA 수술은 다른 정상 조직에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편도를 완전히 제거하는 기존의 수술은 정상적인 식사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PITA 수술의 경우에는 3-5일째부터 정상적인 식사도 가능하다. 수술 시간은 15-20분 소요된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유발, 얼굴형태 변형, 소아의 성장·발달 저하, 반복적인 부비동염, 중이염, 목감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처럼 아이의 성장 발육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데노이드의 비대가 감염에 의한 비대인지,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비대인지를 반드시 감별해 정확한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로드맵 미리 본다

심포지엄 20일 열려... 설치 당위성·향후 추진방안 등 논의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이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의원이 대거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로드맵을 가능해 줄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포지엄 1부는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위에서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의 사회로 이해찬, 박병석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준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환영사, 내외빈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참여 내빈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손 헌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2부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 발제를 맡아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회본원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승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박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윤수정 공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종합토론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희 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치권과 학계, 언론계가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가 주최하며, 세종시가 주관, 중앙일보가 후원하며, 당일 KTV 국민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생중계 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금산군, 오는 10월 15일부터 생후 6개월~만12세 대상

금산군은 2019~2020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오는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19~20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 지연 사유는 WHO에서 백신주 발표 지연 및 균주 변경에 따른 것이다. 생후 6개월~만12세 이하 어린이(2007.1.1.~2019.8.31출생)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맞는 어린이(2019.3.31~만9세)의 경우 2019. 9. 17부터 4주간격으로 2회 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이전 인플

루엔자 접종력이 2회 이상 있는 어린이의 경우 2019. 10. 15.부터 1회 접종을 지원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함에 따라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인플루엔자 접종 이력 에 따라 예방접종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접종 대상 어린이는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하고 전국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을 수 있고, 관내 어린이 위탁의료기관은 금산중앙의원, 우리소아과의원 2개 소이다. 금산=주연기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대전 이색카페 | 상담카페
 당신을 위한 진정한 힐링!

/



성향검사, 적성검사 만나보세요!

NAVER

예약문의



070.8804.1234



@cafeshuim



대전 중구 중앙로 170번길 28, 3층
은행동 와와돈 3층



월화목금 10:00 ~ 22:00
일요일 15:00 ~ 22:00
수요일 : 휴무